

일. 목사의 사역

❖ 목회자의 역량을 갖추

-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.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1 세기 당시에도 추천서는 새 목회자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. 바울도 고린도 교회의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추천서가 필요했습니까? (고후 3:1)
-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추천서를 가지고 있었는데,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었습니다(고후 3:2).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설교를 통해,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(고후 3:3).
-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“새 언약의 일꾼의” 역량을 갖추고 있었습니다(고후 3:6).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신 영광스러운 영생의 언약이었습니다.
-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돌판에 새겨진 율법들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으며, 이 신념은 그들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깨닫지 못하게 했습니다(고후 3:7-9).

❖ 사역에 따르는 위험들

- 바울은 복음사역에 따르는 위험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. 그는 그 위험들을 감수할 가치가 있음을 알았으며, 구원받을 기회를 얻게 된 사람들을 위한 사랑으로 위험들을 감내했습니다(고후 4:15). 게다가 바울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(고후 4:7-9):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, 난처한 일을 당하고, 핍박을 받고, 맞아 쓰러져도 → 꺾이지 않으며, 실망하지 않으며, 버림 당하지 않으며, 멸망하지 않습니다.
- 복음은 연약한 인간을 통해 전파되는데, 이는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.
- 고난은 우리가 부활의 날에 얻게 될 “지극히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”에 비하면 “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”일 뿐입니다(고후 4:14-18).

이. 교인들의 의무

❖ 화목의 사절단

- 교회와 각 성도들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은 “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”시기 때문입니다(고후 5:14). 이 사랑은 어떤 것이며, 무엇이 우리를 강권하는 것일까요?
 - (1)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내어 주셨고 그 사랑은 우리를 감동해 그분을 위해 살도록 이끎니다(고후 5:14-15).
 - (2)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옛 삶을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갑니다(고후 5:17)
 - (3)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, 우리를 화목의 사절단이 되게 하셨습니다(고후 5:18-20).
-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.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안에 살면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동기가 생기며, “하나님과 화목하”(고후 5:20)라는 소망의 기별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.

❖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

- 목회자들과 교인들 모두를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신 것은 그들의 일상생활의 변화를 가져옵니다:
 - (1) 환란을 견디고 (고후. 6:4-5)
 - (2) 성령님의 열매들을 맺으며 (고후. 6:6)
 - (3) 진실되고 정의로움 (고후. 6:7)
 - (4) 어떠한 상황에서도 굳게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고 (고후. 6:8-10)
 - (5) 다른 사람들을 향해 마음을 넓게 열고 (고후. 6:11-13)
 - (6)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며 (고후. 6:14-15)
- 바울은 구약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요약하여 거룩한 삶으로 부르신 것과 그 삶의 결실들을 알려줍니다(고후 6:16-18):
 - (1) 부르심: 죄악의 처소에서 빠져 나와, 죄인들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며, 더러운 것들을 만지지 말고.
 - (2) 결실들: 내가 너희 중에 거하며,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며, 내가 나의 백성이 되고, 내가 너를 맞아들이며,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리라.

삼. 같이 노력한 결과

❖ 위로와 기쁨

- 바울은 갖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심히 기뻐했습니다(고후 7:4). 무엇으로 그는 기뻐했을까요?
-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심각한 경고의 편지를 보냈고 그들은 근심했습니다(고후 7:8). 그러나 그들은 근심을 통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(고후 7:9-10). 이 과정은 바울과의 관계 뿐 아니라 교인들 서로 간의 관계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(고후 7:11-12).

- 그리하여 모두가 위로를 얻었습니다. 바울의 동료인 디도가 위로를 받았고 (고후 7:7), 바울도 디도를 만나서 위로를 받았습니다(고후 7:6). 고린도 교인들도 위로를 받았으며, 이를 들은 바울도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(고후 7:13).
- 그러나 바울은 그의 노력으로 이런 결과가 생겼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. 하나님께서 “비천한 자들, (즉 목회자들과 성도들)을 위로하시기” 때문입니다(고후 7:6).